

한글본 石室祕錄 연구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助教授
朴薰平*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Shishimilu*

Park Hun-pyeong*

Assistant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 The *Shishimilu* is a clinical treatise, published in 1687 by Qing period doctor, Chenshidu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newly discovered Korean translation to the academic world and discuss its significance.

Methods : The newly discovered Korean translated version was examined in detail focusing on bibliography and content items. In addition,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Shishimilu* to Joseon was studied philologically.

Results : 1. The time of completion was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2. The original text was faithfully translated. 3. The book was rearranged from the original document to make it easier to apply in clinical practice. 4. Experiences of Joseon medicine were reflected, mainly prescriptions. 5. According to documentary evidence, the *Shishimilu*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only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was widely distribu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nclusions : The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the *Shishimilu* was the earliest among known Korean translations of Chinese medical texts, and while faithfully translating the original text, the compilation was rearranged to make it easier to apply clinically. In addition, the experience of Joseon medicine was reflected mostly in prescriptions. It could be determined that if contents of the *Shishimilu* appear in Korean literature whose writing period is unknown, it can be historically verified to have been written after the late 19th century.

Key words : Shishimilu, Chenshiduo(陳士鐸),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medical text, the Korean Empire

* Corresponding Author : Park Hun-pyeong.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Tel: 061-330-3525, E-mail: lillipute@dsu.ac.kr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July 20, 2023), Revised(July 28, 2023), Accepted(July 28, 2023)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조선 후기 중국 의학의 수용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간행 의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대 자이위화(翟玉華)의 『痘科彙編』 사례처럼 조선 판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¹⁾ 조선에서 별도로 간행되지 않은 경우, 다른 의서나 문헌에 인용된 시기를 살펴서 수용 시기를 고증하였다. 예를 들어 명대 장제빈(張介賓)의 『景岳全書』가 조선에 수용된 시기를 周命新의 『醫門寶鑑』이나 黃道淵의 『醫宗損益』 등의 인용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²⁾ 중국 의서의 수용은 해당 의서가 조선에서 개간행되었거나 인용된 시기에 의하여 고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감염병을 다룬 문헌 내지, 현대 한의학 학술 유과와 관련된 몇몇 의학 인물 위주로만 연구가 진행되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최근 청대 의가인 陳士鐸이 저술한 『石室秘錄』의 한글본이 새롭게 발굴되면서⁴⁾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陳士鐸의 조선 수용에 대하여 새롭게 논의할 여지가 생겼다. 陳士鐸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중후반 한의학 원전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들 연구는 陳士鐸과 한국의학사의 관련성을 다루지는 않았다.⁵⁾

陳士鐸은 청대 의가로, 생몰연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1627~1707년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자는 敬之, 호는 遠公, 자호는 大雅堂主人이다. 중국 浙江省 紹興 출신으로, 본래 유학을 하다가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석실비록』 이외에도 『辨證錄』, 『辨證奇問』, 『本草新編』 등 많은 의서를 남겼다.⁶⁾

『석실비록』은 1687년에 간행한 종합 임상 의서로서, 저자가 『黃帝內經』과 『難經』을 연구한 결과인 正醫法, 反醫法, 順醫法 등 128가지 치료법으로 綱을 삼고, 그 안에서 병증으로 다시 目을 삼아 의론과 처방을 분류하였다. 전체 6권 중 1-5권은 치료법으로 분류되었고, 권6은 상한과 잡병을 다루는 내용이다. 저자가 창방한 처방도 291방에 이르는 데다 당시 다양한 민간 의약 경험도 흡수하여 500여 방을 소개하고 있다.⁷⁾

조선의 한글 의서는 조선전기부터 구급방, 산과학, 감염병 의서 등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에 의하여 언해본이 간행되고 보급된 바 있다.⁸⁾ 조선 후기 들어 민간에서도 조선에서 중요한 의서였던 『東醫寶鑑』과 『鍼灸經驗方』의 한글 번역본이 나오고,⁹⁾ 단방 중심의 처방집에서도 한글본이 나온 사례가 있다.¹⁰⁾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전에 조선에서 중국 의서를 번역 소개한 사례는 최근까지 알려진 바 없었다. 한글본 『석실비록』의 발굴은 단일 사례이기는 하나 그 희귀성 때문에 주목된다.

1) 박훈평. 조선 간행 두과휘련 저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19. 77. pp.213-230.

2) 박훈평. 조선 후기 경약전서의 수용. 서지학연구. 2020. 84. pp.137-161.

3) 이러한 방법론으로 마진 관련 중국 의서와 조선후기 의서들간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된 바 있다.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 pp.15-125.

4) 강원도 원주에서 발굴되었다. 현재 개인 소장이다.

5) 이병직, 윤장열. 陳士鐸의 陰陽五行說에 關한 闡發.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2). pp.99-109. 이병직, 윤장열. 陳士鐸의 臟腑五行病理와 雜病五行病理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18(1). pp.121-136. 박기열, 윤장열. 陳士鐸의 現存醫書 八種 序文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18(1). pp.94-120. 정동혁, 박경남, 맹용재. 陳士鐸의 脈訣闡微에 關한 研究. 한국사학회지. 2007. 20(1). pp.112-138. 최중필, 윤장열. 陳士鐸 命門說 特徵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18(3). pp.207-212. 정경호, 김기욱, 박현국. 陳士鐸 임상 이론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3), pp.31-51. 김정철, 조은희, 금경수. 陳士鐸의 心包論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2). pp.141-155. 2010년대 들어 방제학계를 중심으로 陳士鐸의 처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6) 陳士鐸 著. 彭堅 點評. 石室秘錄 點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21. p. 全書點評 1.

7) 陳士鐸 著. 彭堅 點評. 石室秘錄 點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21. pp. 全書點評 2-11.

8) 예를 들어 산과의서로는 허준의 『診解胎產集要』, 구급방 의서로는 성종때 편찬된 『救急簡易方診解』, 감염병 의서로는 허준의 『診解痘瘡集要』 등이 있다.

9) 백두현, 이미향, 송지혜, 홍미주. 침구경험방언해의 해제와 주해. 영남학. 2002. 2. pp.143-206. 『침구경험방』 언해본은 백두현 발굴본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방요결』 등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편. 선본해제 1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p.23. 장서각 소장의 『동의보감』 한글 번역본은 내경편 중 1,3,5의 3책만 남아있다. 장서각본은 동의보감 한글 번역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장서각한국본해제 자부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192-193.

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언문의서』가 그 사례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편. 선본해제 1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pp.253-254.

본고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한글본의 서지 사항 및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석실비록』의 조선 도입 시기에 대하여 문헌학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글본 『석실비록』을 학계에 보고하고, 그 의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한글본 『석실비록』 서지

1) 형태서지 및 필사 시기

한글본 『석실비록』은 개인 소장으로서 책 크기가 26.5 × 18.2cm이며 상하권 2책이다. 글자 수는 12행, 24자로 필사되었다. 상권은 오침안정법으로 선장 제작되었고, 하권은 사침안정법으로 제작되었다. 하권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상권에 비하여 좋지 못한데, 표지 재질 및 본문의 필사 상태가 그러하다. 예를 들어 상권의 본문은 네 돌래의 테두리에 변란(邊欄)을 그리고, 종이 전체에 콩기름을 먹였으며, 중요 내용에는 상변에 책갈피 형식의 종이를 덧붙여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하권의 본문에는 변란이 존재하지 않으며, 종이 일부에만 콩기름이 먹여졌고, 상변에 별도의 책갈피 형식의 종이도 없다. 표지의 경우도 상권은 두꺼운 종이를 만들어진 반면에 하권의 표지는 더 얇고, 종이끈도 하권의 경우는 거칠고 일정하지 않다.

상권의 분량은 겹장 55장으로 간지 2장 서문 1장, 목록 2장, 본문 50장으로 구성되었다. 하권의 분량은 겹장 47장으로 표제지 1장, 목록 2장, 본문 43장, 간지 1장으로 구성되었다.

표제는 상권 표지(사진 1)에는 “石室祕錄 上” 이고 서문(사진 2)에는 “석실비록”이며, 목록(사진 3)에는 “석실비록”이다. 하권 표지에는 표제가 따로 없고, 표제지에 “石室祕錄 下卷”, 목록에는 “석실비록”으로 되어있다. 해당 책에서 “石室祕錄”을 “석실비록”, “석실비록”, “석실비록” 등 다양하게 한글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본 논고에서는 한글본 『석실비록』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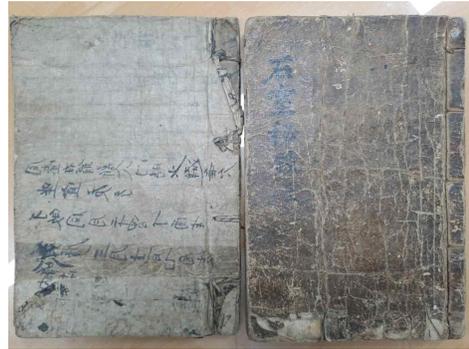


사진 1. 한글본 『석실비록』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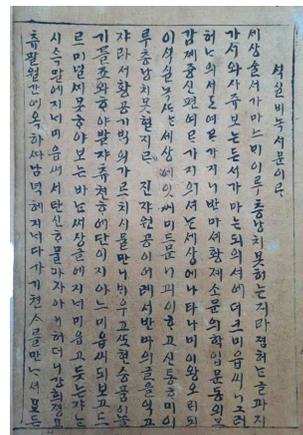


사진 2. 한글본 『석실비록』의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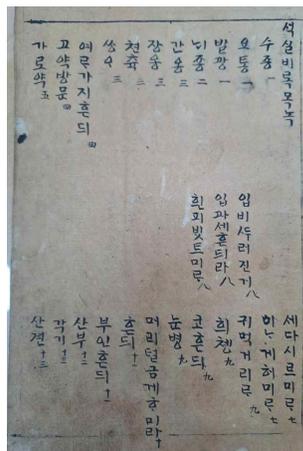


사진 3. 한글본 『석실비록』 상권 목록

한글본 『석실비록』의 필사 시기는 상권과 하권이

다르다. 상권 뒤표지 속 면에 “신축연 八月 十六日 기유일 유시라”라는 내용으로 볼 때, 상권의 필사 시기는 1901년(광무 5)이다. 신축년이면서 8월 16일이 기유일인 해는 1901년이다. 하권 본문 말미에 “丙午年 至月 二十六日 始”, 뒤 간지에 “丙午年 二月初十日 終”으로 보아 하권의 필사 시기는 1906년(광무 10)이다. 상권의 목록에 별도로 “상권”으로 언급되지 않고, 두 책의 필사 시기가 차이가 5년이나 나는 점 등으로 추정해보면, 원래 계획은 한 권(현재의 상권)만 만들려다, 후에 하권을 만들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는 필사자가 곧 번역자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한글본 『석실비록』의 서문 전체와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서문은 원저자의 서문처럼 저술되는 형식을 가졌지만, 실제 원서 서문과는 관련이 없고, 필사자가 꾸며서 쓴 글이다. 다만 원저자인 陳士鏞의 글로 되어있어 필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조선에 널리 보급된 의서들을 언급하면서, 필사자는 『석실비록』은 세상에 드물다고 평가한다.

석실비록 서문이라.

세상술서가 마느미 이루 층낭치 못허는지라. 점허논글과 지가서와 사주보는 든 서가 마느되 의서에 더크미 읍씨니, 그러허는 의서도 여러가지니, 《반마서》·《황제소문》·《의학입문》·《동의보감》·《제중신편》, 여러 가지 의서는 세상에 나타나미 이왕 오리되 이 《석실록》 쓰는 세상에 잇씨미 드문니 괴이하고 신통허미 이루 층낭치 못허지라. 진자원공이 어려서 반마의 글을 익고 자라서 황공기백의 가르치심을 만나 비우고 또한 성품이 놀기를 조와허야 발자츄 천허에 단이지 아느미 읍씨디 보고 드르미 널씨 못허야 보는 바는 씨상글에 지느미 읍고 듯는 자는 시속말에 지느미 읍씨서 탄신허물 마자 아니허더니 강희정묘 추파월간에 옥하 싸 남녘헤지니다가 기천슬를 마느서 모든 의서를 의논허다가 원공이 지성으로 못기를 마지아니허거늘 기천스

스—미 가운데로 칙어섯권을 너예쥬며 왈 “이 책은 세상에 읍시미요 벽낙석함 속에서 어든 칙이니 차서히 보라.”허거늘 진자원공이 바다가지고 사례허물 마지아니허고 이에 시엄허야 세상스람을 구헌죽 가히 공 읍시미 읍는고로 기이허역여 세상에 전허니 이를 보고야 가히 의원이라 층허리니 웃지 신기치 아느리요. 진서로허면 스—상치아는고로 이제 특별이 너서로 반등허야 전허니 거의 세상스람 구허미 마느리라.

감히 정묘 동지 후 십일일에 진자원공 보는 근서 호노라.

석실비록 서문이라. 세상 술서術書가 많음에 이루 측량測量치 못하는지라. 점치는 글과 지가서地家書와 사주보는 등의 책이 많은데, 의서보다 더 큼이 없으니, 그러나 의서도 여러 가지니 《반마서 班馬書》·《황제소문》·《의학입문》·《동의보감》·《제중신편》의 여러 가지 의서는 세상에 나타남이 이왕 오래이되, 이 《석실록》 따위는 세상에 있음이 드무니 괴이하고 신통함이 이루 측량測量치 못할지라. 진자원 공이 어려서 반마班馬¹¹⁾의 글을 읽고, 자라서 황제[황공黃公]와 기백岐伯의 가르치심을 많이 배우고, 또한 성품이 주유하기[놀기]를 좋아하여 발자츄 천하에 닿지 않음이 없으되, 보고 들음이 넓지 못해서, 보는 바는 세상 글에 불과하고 듣는 자는 세속 말에 불과하여 탄신嘆呻을 마지아니허더니 강희 정묘년(1687) 가을 8월 간에 옥하玉河¹²⁾ 땅 남쪽을 지나다가 기천사岐天師[기백]를 만나서 모든 의서를 의논하다가 원공遠公이 지성으로 문기를 마지아니허거늘, 기천사岐天師가 소매 가운데로 책 6권을 내게 주며 말하기를 “이 책은 세상에 없읍이요 벽락돌함[벽낙석함霤落石函] 속에서 얻은 책이니 자세히 보

11) 반고와 사마천, 그들이 저술한 책인 『한서』와 『사기』. 유학을 공부했다는 말의 관용적 표현이다.

12) 북경에 있던 강. 通惠河로도 불린다.

라”하거늘 진자원공이 받아가지고 사례함을
마지아니하고, 이에 시험하여 세상 사람을 구
한즉 가히 공功 없음이 없는 고로 기이히 여
겨 세상에 전하니 이를 보고야 가히 의원이라
칭하리니, 어찌 신기하지 않으리오. 진본[진서
珍書]로 하면 손상(損傷)할지 아는고로, 이제
특별히 내로서만 베끼어서[등臚하야] 전하니
거의 세상 사람 구함이 많으니라.

감히 정묘년(1687) 동지 후 11일에 진자원
공 본인이 삼가 서序하노라.

2) 목록 및 내용

한글본 『석실비록』에는 상권 각 목록이 별도로 있다. 목록에는 항목과 해당 항목이 나오는 본문의 장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실제 본문으로 검토하면 일부 다르다. 상권과 하권의 필사 시기가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두 책을 한꺼번에 분석하지 않고, 각각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글본 『석실비록』 상권의 목록 및 해당되는 원문의 출전은 아래와 같다(표 1).¹³⁾

표 1. 한글본 『석실비록』 상권 항목과 출전

	목록	본문	출전
	(없음)	정의 [正醫]	권1 正醫法
1	수종	-	
2	요통	-	
3	발광	-	권1 反醫法
	(없음)	순의 [順醫]	권1 順醫法
4	늑종	-	권1 內治法
5	간옹	-	
6	장옹	-	
7	천축[喘]	-	권1 逆治法
8	쌍궤[雙鵝]	-	
9	여러가지 혼디	-	권1 外治法
10	고약방문	-	

13) 본고에서 『석실비록』 원문은 陳士鏗 著, 彭堅 点評, 石室 祕錄 点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21를 참조하였다. 원문 검색은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cited July 3]; Available from: <https://ctext.org/zh>를 활용하였다. 표에서 “-”는 같은 내용이 있음을 줄인 것이다.

11	가로약 [가루약]	-	권1 碎治法
	(없음)	혹디 시 르 는 법 이라	
12	세다시르미르 [허다스름이라]	-	
13	미느게허미르 [입안에힘이라]	-	권1 偏治法
14	입비쭈러진거 [입비뚫어진것]	-	
15	입가세흔디라	-	권2 上治法
16	흰피뵈트미르 [흰피 뻘음이라]	-	권2 上治法
17	귀먹거리르	-	
18	희청	-	
19	코흔디	-	권2 假治法 권3 長治法 권4 形治法
20	눈병	-	
21	머리털금게흥미 라[머리털 검게 함이라]	-	권2 上治法
22	흔디	-	권4 明治法 권6 癰疽并無 名腫毒
23	부인흔디	-	권4 暗治法
24	산부	-	권6 水濕門
25	각기	-	권4 形治法
26	산전	-	권4 產前治法
27	산후	-	권4 產後治法
28	심경[心經]	-	권2 本治法 권2 急治法
29	오장화[五臟火]	-	권4 抑治法
30	담	-	권4 痰治法
31	고창	-	권5 遠治法
32	중풍	-	권6 內傷門
33	간질	-	
34	황달	-	권6 水濕門
35	상흔	-	권6 傷寒門
36	토산[狐疝]	-	권6 燥濕門 권2 男治法
37	희쌔[희배]	-	권3 飢治法
38	학신평[학슬퐁]	-	권2 下治法
39	무렵[무릐]	-	

40	발흔디	-	권4 明治法
41	다리마디	-	권2 下治法
42	염기[染氣]	-	권2 失治法
43	즉중음한 [直中陰寒]	-	권2 急治法
44	어혈	-	권2 不內外治法
45	음허화동	-	권2 陰治法
46	음한무화 [陰寒無火]	-	
47	설쓰토혈	-	권2 陽治法
48	양쑹설쓰	-	
49	강양부도 [強陽不倒]	-	권2 男治法
50	양도불거 [陽道不舉]	-	
51	산증	-	
52	스근발	-	권3 立治法 권3 縛治法 권1 偏治法 권5 遠治法
53	스근발췌췌 [손발뻗뻗]	-	권4 動治法
54	세상보논계	-	권5 傷寒相舌秘 法
55	얼굴상보논계	-	권5 論氣色
56	땃보논거	-	권5 論脈訣
57	죽고살미르	-	권5 論生死
58	자식느미르	-	권5 論子嗣
59	경풍	-	권5 兒科
60	감창	-	
61	토허미르	-	
62	아히설쓰	-	
63	경씨	-	
64	젯안이떡오미르	-	
65	아히비킵	-	
66	소변불통	-	권3 腑治法 권2 末治法 권6 燥症門
67	딴변불통	-	권2 末治法 권3 腑治法
68	딴소변밥구미르	-	권4 奇治法
69	딴소변피누미르	-	권3 分治法 권6 燥症門
70	이질	-	권2 通治法
71	쥬체하혈	-	

72	기허중만	-	권2 塞治法
73	주체	-	권2 斂治法
74	토혈	-	

상권의 경우 목록은 74개 항목인데 실제 본문의 항목은 77개 항목이다. 서문을 제외하면 상권에 수록된 본문 내용은 모두 원서의 내용을 번역하였다. 36번째 항목인 「토산」은 실제 원문을 보면 ‘호산’으로 독음이 오류이며, 47번째 항목인 ‘설쓰토혈’도 내용을 보면 ‘상서토혈[傷暑吐血]’로 오류이다. 한글본 서문이 필사자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새로운 글을 만든 반면에, 상권 내용은 철저히 원서 내용만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원문과 일부 차이가 나는 점은 필사자의 오류로 추정된다.

「석실비록」은 치료법을 항목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른 의서들과 다른 독창성이 있는데, 언해본 상권은 초반부의 ‘정의[正醫]’(사진 4)와 ‘순의[順醫]’를 제외하면 모든 항목명을 원서와 달리 병증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증에 관련된 여러 치법 내용을 하나의 항목으로 모은 사례도 있다. 임상가 입장에서 치료법으로 항목이 분류되어있으면, 실제 적용할 치료법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기존 의서들이 병증에 따른 분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임상가들이 익숙한 분류방식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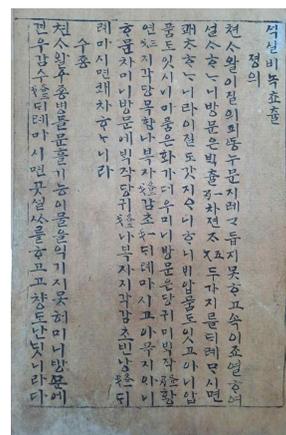


사진 4. 한글본 『석실비록』 상권 본문 첫 면

이상 상권 목록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필사자는 「석실비록」을 충실하게 번역 소개하고자 했다. 필사자 자신의 경험이나, 관련된 다른 의서 인용이 전혀 없다.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역자의 신뢰가 밀바탕일 것이다. 둘째, 임상에 활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항목을 재분류하였다. 「석실비록」은 치료법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는 실제 임상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한글본 『석실비록』 하권의 목록 및 해당되는 원문의 출전은 아래와 같다(표 2).

표 2. 한글본 「석실비록」 하권 항목과 출전

	하권 목록	본문	출전
75	관격토사	-	권2 開治法 권2 墮治法
76	복통	-	권2 墮治法
77	식적	-	
78	토후는 증세력	-	권2 霸治法
79	설상후는 증세력	-	
80	가슴 차미라	-	
81	차서 설상	-	
82	간이뒤집피미르	-	권3 倒治法
	(없음)	물에 빠진 스톱 구히미르	
83	기허다담	-	권3 肥治法
84	파된 스톱이라	-	권3 瘦治法
85	병이세듬미르	-	권3 沈治法
86	나제 더헌 병이라[낮에 더헌 병이라]	-	권3 日治法
87	밤에 더헌 병이라	-	권3 夜治法
88	원기 허허미르	-	권3 氣治法
89	협통요척	-	권3 臟治法
90	코가 락키미라	-	
91	상풍	-	권3 初治法
92	상한	-	
93	상식	-	
94	상서	-	권3 初治法
95	초증	-	
96	상섭	-	
97	화증	-	
	(없음)	학질이 변 후이질되 미라	권3 變治法
98	중풍발광	-	

99	중서망양	-	권4 奇治法
100	비에빔노오미라	-	
101	차릭누미르	-	
102	혼디 이상이 누미르	-	
103	몸이가레우미르	-	
104	몸에지렁소릭누미 르	-	
105	팔에머리누미르	-	
106	손바닥에 불거지미르	-	
107	코 크기 쥬먹가트미라	-	
108	사나에 유중누미라	-	
109	마리 장심이 불가치불그미르	-	
110	수족이머러지미르	-	
111	손썩 썩지미르	-	
112	손꾸락의 별기나미르	-	
113	눈에수육노오미르	-	권4 奇治法
114	세가 입 방계 나오미르	-	
115	세가거드러미르	-	
116	세에 피가 누미르	-	
117	입속우의이 나미르	-	권5 近治法
118	급히너머지미르	-	
119	심통폭망	-	권4 筋脈治法
120	복통	-	
121	안팍등곰팡이라	-	권4 筋脈治法
122	주엽 싸지고 몸이파릭미르	-	
123	적병	-	권4 軟治法
124	기운읍는 증세력	-	권4 堅治法
125	오된 허소	-	권4 收治法
126	습각기	-	권4 形治法
127	허로	-	권1 全治法
128 ~ 157	늑중/귀먹오미르/ 쥬마담/ 쥬마담과여르가지 담이라/담중/연쥬/ 담격/치습/습각기/ 여르혼디르/후비당 창/수족/치질/당화 /더우고질/당창/만 신창/흠것난지아느 미르/소아갈질/감 썩늘넌	(석실비록 단방초취 나라) -	「석실비록」 미수록

	겹품물이르/양미창/양미창/여라창/오린호소/연주창/유중/어혈/부인음탈/오린체/병에상하미르		
158	흔디르	-	권6 癰疽并无名腫毒
159	비상쪽	-	권6 砒毒
158	흔디르	-	권6 癰疽并无名腫毒
159	비상쪽	-	권6 砒毒
160~163	육신고/성신고/만신고/만병통치	-	「석실비록」 미수록
164	기창	-	권4 皮治法
165	황수창	-	
166	복즈전풍	-	
171	광증	-	권6 狂症
172	口木病	-	권6 呆病
173	켈증	-	권6 厥症
174	망양	-	권6 亡陽
175	반진	-	권6 斑疹
176	설조폐간	-	권6 燥症門
177	혈방 후에 口舌조열	-	
178	五絶	-	권6 五絶
179	노인치	-	권4 老治法
180	소년치	-	권4 少治法
181	부인치	-	권4 富治法
182	빈인치	-	권4 貧治法
183	산후의 구토농혈	-	권6 傷寒門
184	사후	-	
185	산후에 크게 쌌느미리	-	
186	산후발광	-	
187	잉부	-	
188	원뽕통 다시르미르	-	권1 大治法
189	온역	-	권5 溫疫治法
190	장티	-	권5 瘴癘治法
191	머리흔디	-	권3 浴治法
192	화울흉증	-	권3 達治法
193	위증[痲症]	-	권3 長治法 권1 偏治法

하권의 경우 목록은 119개 항목인데 실제 본문의 항목은 121개 항목이다. 항목명의 단순 오류가 상권에 비하여 더 많은데, 172번째 항목의 경우 ‘무

病’을 ‘口木病’이라 하는 등이 그 사례이다. 상권처럼 많은 내용이 원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번역하였는데, “석실비록 단방초 취니라”라는 내용 이후로 나오는 128~157, 160~163번째의 34개 항목은 원서에 없는 내용이다. 이들 항목은 병증 설명 없이 처방만 나오며 예를 들어 ‘늑중’항목의 경우 내용이 십기산[십기산] 처방과 그 처방 구성만 나오는 식이다. 그런데 ‘單方’이란 용어를 활용하였음에도 실제 단방보다는 여러 가지 약물로 구성된 처방 위주로 수록되었다. 내용에 기록된 ‘석실비록 단방초’만 보아서는 「석실비록」 책 내용 중 처방을 뽑은 것인지, 「석실비록 단방초」라는 책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들 항목이 「석실비록」 원문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필사자가 보았던 저본이 현존본과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즉 한글본의 저본에 ‘단방’이라 하여 저본에 추가된 내용을 필사자가 「석실비록」의 원서 내용으로 생각하고 필사했을 경우이다. 둘째, 필사자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설일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하다.

이들 단방 관련 항목은 「석실비록」이 아닌 다른 의서에 출전을 두고 있다. ‘늑중’ 항목에 나오는 처방 十奇散은 『동의보감』에 소개된 加味十奇散과 처방 구성은 같고 용량만 일부 다르다.¹⁴⁾ ‘주마담과 여르가지 담이라’ 항목에 소개된 妙應丹은 『동의보감』에 소개된 처방과 동일하다.¹⁵⁾ ‘담증’ 항목의 連痰丸은 처방 구성을 보면 연담환이 아닌 痰痰丸으로 또한 『동의보감』에 소개된 처방이다.¹⁶⁾ 필사자의 경험이 추가되었든, 아니면 번역 저본의 내용에 추가

14) 『동의보감 잡병편』 癰疽 上 “治癰疽已成。未成服之內消。或年衰氣弱者，尤宜當歸肉桂人參黃芩川芎白芷防風桔梗厚朴甘草乳香沒藥各等分，右爲末，每三錢，溫酒調服。不飲酒，麥門冬湯調下。” 허준 저.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광주. 수퍼노바. 2017. p.548. 한글본 「석실비록」에는 당귀, 유향, 몰약이 다른 약제의 절반이다. 이 처방의 원래 출전은 원대 『세의득효방』이다.

15) 『동의보감 내경편』 痰飲. 허준 저.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광주. 수퍼노바. 2017. p.133.

16) 『동의보감 내경편』 痰飲. 허준 저.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광주. 수퍼노바. 2017. p.135.

된 것이든, 출전으로 볼 때 「석실비록」의 내용을 『동의보감』 등의 조선의학으로 보완한 것이라 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항목에서 병증 설명이나 의론이 없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석실비록」에 대한 보완은 처방에만 국한되었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동의보감』 처방의 활용에 대한 경험 지식을 임상에서 계속 활용하고자 하지만, 『석실비록』만의 병증에 대한 의학관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한글본 하권도 상권처럼 병증별로 항목 분류를 하였다. 그렇다면 병증별 항목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항목의 순서를 분석해보면 많은 내용이 원서의 순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전의 순서가 권 2, 권 3, 권 4식이다. 그러다 후반부에 들어서 다소 순서가 혼재되는데, 필사자가 뒤늦게 다시 전반에서 누락된 병증들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석실비록」 원서는 151개로 항목이 분류되어있다. 이 중에서 한글본은 86개의 항목에서 내용을 뽑았다. 이는 56.95%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게다가 인용된 항목이더라도 내용 전체를 모두 번역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한글본은 완역본이 아닌 편역본의 성격을 지닌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역한 것은 텍스트의 분량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서 보았듯이 현존 한글본은 상하권의 번역이 동시에 계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석실비록』의 도입 및 영향

1) 문헌 기록

『석실비록』과 그 저자 陳士鏞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관찬 사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1799년(정조 23)에 간행된 『濟衆新編』에도 인용되지 않았다.¹⁷⁾ 또한 1797년(정조 21)에 저술된 『麻科會通』에도 인용된 바 없다.¹⁸⁾ 18세기 다른 의서들에서 인용 사례는 없다. 이상으로 볼 때 18세기 이전에 『석실비록』이 조선에 소개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19세기의 주요한 의서에도 『석실비록』은 인용되

지 않았다. 1868년에 간행된 黃道淵의 『醫宗損益』의 「引用諸書」에 언급되지 않는다.¹⁹⁾ 같은 저자의 『方藥合編』(1884년)에도 인용되지 않았다.²⁰⁾

일제강점기 문헌부터는 『석실비록』의 인용사례가 있다. 먼저 경남 하동에서 활동한 영년의생 朴度億이 1933년 간행한 마진 전문서인 『麻疹濟生方』은 권1 「疹初熱」 항목에서 마진 관련하여 『석실비록』을 1차례 인용하였다.²¹⁾ 다음으로 1946년 李常和가 저술한 『辨證方藥正傳』의 增補方 850방 가운데 陳士鏞 관련 방은 290여 개이며 그중 『석실비록』에선 15개 방이 인용되었다.²²⁾

인용 문헌을 통해서는 19세기 이전 문헌에서 『석실비록』의 조선 도입을 확인할 수 없고, 일제강점기 이후 문헌에서는 확인된다.

2) 현존본 현황

필사본 『석실비록』의 기관 소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사진 5, 표 3).²³⁾ 내용을 통해 필사 시기가 알

19) 『醫宗損益 권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DB.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www.nl.go.kr>

20) 윤용갑. 방약합편에 수록된 처방의 주치별 계통분류와 인용문헌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1990. 1. pp.55-56.

21) 박훈평. 조선 후기 경약전서의 수용. 서지학연구. 2020. 84. p.153.

22) 김기욱, 박현국. 李常和의 『辨證方藥正傳』에 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3). pp.4-5.

23) 이정현. 한의학 고서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pp.298-30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장서각한국본해제 자부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226-227. 국립중앙도서관 편. 선본해제 1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pp.194-195. 『옥하신서』 이미지는 소장처인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jsg.aks.ac.kr>을 활용하였다. 서지 사항은 해당 소장처의 소장 정보를 활용하였다. 표3의 2,3번.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library.korea.ac.kr> 표3의 4,5번.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DB.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www.nl.go.kr> 표3의 1번,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library.kyonggi.ac.kr> 표3의 6번.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lib.dongguk.edu> 표3의 7번.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자료검색.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kyudb.snu.ac.kr> 표3의 9번.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17) 이정화. 계증신편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보. 2010. 35. p.71.

18) 정약용. 정본 여유당전서 34. 서울. 사암. 2012. pp.47-49.

려진 사례는 20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필사본 『석실비록』 중 필사자가 알려진 사례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漳溪口錄』이 유일하다. 『漳溪口錄』은 전북 고창 출신의 金箕斗에 의해 필사되었다. ‘漳溪’란 책제는 필사자의 호입니다. 『장계구록』의 서문에 따르면 서문은 1908년(음희 2)에 쓰였고, 필사는 1920년에 이루어졌다.²⁴⁾ 필사본들의 정확한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현존본의 수량으로 볼 때 세간에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 소장 의 현존본은 모두 한자본이며 한글본은 본고에서 다른 개인 소장본이 유일하다.



사진 5. 『玉河新書』 1책 표지

표 3. 필사본 『석실비록』 기관 소장 현황

	표제	책수 / 소장처	시기
1	石室秘錄 卷三, 卷六	2책 경기대 도서관	?

<https://library.yonsei.ac.kr> 표3의 11-13번.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elibrary.wku.ac.kr> 표3의 14번. 동아대학교, 한림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library.donga.ac.kr> 표3의 15,16번.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jsg.aks.ac.kr>

24) 국립중앙도서관 편. 선본해제 1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pp.194-195.

2	石室秘錄	3책 고려대 도서관	1909
3	石室秘錄	6책 고려대 도서관	?
4	石室秘錄	6책 국립중앙도서관	?
5	漳溪口錄	1책 국립중앙도서관	1920
6	石室秘錄	1책 동국대 도서관	?
7	石室秘錄	1책 서울대 규장각	?
8	石室秘錄	미상 성암고서박물관	?
9	石室秘錄	1책 연세대 도서관	1901
10	石室秘錄	5책 연세대 도서관	?
11	石室秘錄 卷四	1책 원광대 도서관	?
12	石室秘錄	5책 원광대 도서관	?
13	石室秘錄抄	1책 원광대 도서관	?
14	石室秘方要 抄	1책 / 동아대 한림도서관	?
15	石室秘錄	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
16	玉河新書	6책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외에 개인소장의 필사본이 다수 있는데, 대표적인 책이 1898년(광무 2)~1902년(광무 6) 사이에 완성된 『石室方藥類聚』 1책이다. 이 책은 『석실비록』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의보감』의 병증별로 항목을 재분류하여 찾게 쉽게 하였다.²⁵⁾ 이러한 재분류의 목적은 한글본 『석실비록』이 원래의 분류 체제를 바꾼

25) 안상우. 고의서산책 644 石室秘方에 대한 새로운 임상적 용 - 石室方藥類聚 ①. 민족의학신문. 2014년 8월 16일자. [cited July 3]; Available from: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77>. 안상우. 고의서산책 645 寶鑑法例 의거한 論病藥方 - 石室方藥類聚 ②. 민족의학신문. 2014년 8월 22일자. [cited July 3]; Available from: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25>

이유와 유사하다.

필사 시기가 알려진 개인소장 필사본으로 『天師編輯抄』 1책도 있다(사진 6). 내지에 “己酉”에 필사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1909년(융희 3)으로 필사 시기가 고증된다. 이 책은 원래 문헌의 분류방식대로 내용을 가려 뽑아 요약한 내용이다.



사진 6. 『天師編輯抄』 표지

『석실비록』은 원래의 표제 외에도 「玉河新書」, 「漳溪口錄」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필사되었다. 예를 들어 『玉河新書』는 玉河에서 저자가 이 책을 받았다고 해서(서문 번역 참조) 『석실비록』의 다른 이름 중 하나가 되었다. 『天師編輯抄』는 책 내용이 기백 천사에게서 내용을 전수받았다고 해서 불리운 이름이다. 그러므로 책제목의 유사하지 않은 다른 필사본들의 실제 본문 내용을 확인하면 더 많은 「석실비록」 전본이 발견될 수 있다.

현존하는 필사본 중 필사된 시기가 고증된 경우는 19세기 후반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집중이 되어있다. 이는 『석실비록』의 국내 도입이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졌고 일제강점기에 활발하게 보급되었음을 시사한다. 한글본이 필사된 시기도 이 시기와 겹친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갑작스레 보급이 확대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추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석실비록』의 보급 시기로 볼 때, 만약 저술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의학 필사본이나 간행본에서 「석실비록」만의 내용, 예를 들어 “正醫法” 등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 문헌의 저술 시기는 19세기 후반 이후의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III. 결론

『석실비록』은 청대 의가 陳士鐸이 저술하여 1687년에 간행한 종합 임상서이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한글본을 서지와 항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또한 『석실비록』이 조선에 도입된 시기에 대하여 문헌학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첫째, 한글본 『석실비록』은 대한제국기에 완성되었다. 책의 기록을 보면, 상권은 1901년, 하권은 1906년에 필사되었다.

둘째, 한글본 『석실비록』은 대체로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다른 문장의 가감없이 원문만 번역하였다. 원서의 151개 항목 중에서 56.95%인 86개 항목을 뽑아서 번역하였다.

셋째, 한글본 『석실비록』은 임상에 활용하기 편하게 원서와 다르게 편제를 바꾸었다. 기존 치료법 위주의 항목 분류를 임상에 활용하기 쉬운 병증으로 재분류하였다.

넷째, 한글본 『석실비록』은 처방 위주로 조선의 학의 경험을 일부 반영하였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동의보감』 처방의 경험 지식을 임상에서 계속 활용하고자 함이다. 한글본 하권의 34개 항목은 처방만을 『동의보감』 등의 문헌에서 인용하였다.

다섯째, 문헌 증거상으로 『석실비록』의 국내 도입은 19세기 후반에야 이루어졌고, 일제강점기에 보급이 확대되었다. 이는 한글본 서문에서 당시 세상에 드물다는 기록, 현존하는 필사본들의 필사 시기, 인용 문헌의 출간 시기 등으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한글본 『석실비록』은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 의서 한글 번역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면서도, 임상에 활용하

기 쉽게 편제를 바꾸고, 처방 위주로 조선의학의 경험을 반영하였다. 또한 저술 시기를 알 수 없는 우리나라 문헌에서 『석실비록』의 내용이 나온다면, 19세기 후반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고증할 수 있다.

References

1. 국립중앙도서관 편. 선본해제 1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2.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
3. 저자 미상. 천사편집 초. 필사지 미상. 1909.
4. 저자 미상. 한글본 석실비록 상. 필사지 미상. 1901.
5. 저자 미상. 한글본 석실비록 하. 필사지 미상. 1906.
6. 정약용. 정본 여유당전서 34. 서울. 사암. 2012.
7. 이정현. 한의학 고서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8. 허준 저.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광주. 수과노바. 2017.
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장서각한국본해제 자부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0. 陳士鐸 著. 彭堅 點評. 石室祕錄 點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21.
11. 김기욱, 박현국. 李常和의 『辨證方藥正傳』에 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지. 2009. 22(3).
12. 김정철, 조은희, 금경수. 陳士鐸의 心包論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2).
13. 박기열, 윤창열. 陳士鐸의 現存醫書 八種 序文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05. 18(1).
14. 박훈평. 조선 후기 경약전서의 수용. 서지학연구. 2020. 84.
15. 박훈평. 조선 간행 두과회편 저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19. 77.
16. 백두현, 이미향, 송지혜, 홍미주. 침구경험방인해의 해제와 주해. 영남학. 2002. 2.
17. 윤용갑. 방약합편에 수록된 처방의 주치별 계통분류와 인용문헌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90. 1.
18. 이병직, 윤창열. 陳士鐸의 陰陽五行說에 關한 關發. 대한한의학회지. 2004. 17(2).
19. 이병직, 윤창열. 陳士鐸의 臟腑五行病理와 雜病五行病理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05. 18(1).
20. 이정화. 제증신편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보. 2010. 35.
21. 정경호, 김기욱, 박현국. 陳士鐸 임상 이론의 특징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09. 22(3).
22. 정동혁, 박경남, 맹용재. 陳士鐸의 脈訣闡微에 關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07. 20(1).
23. 최종필, 윤창열. 陳士鐸 命門說 特徵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05. 18(3).
24.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library.korea.ac.kr>
25.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DB.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www.nl.go.kr>
26.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library.kyonggi.ac.kr>
27.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lib.dongguk.edu>
28. 동아대학교. 한림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library.donga.ac.kr>
29.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자료검색.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kyudb.snu.ac.kr>
30. 안상우. 고의서산책 644 石室祕方에 대한 새로운 임상적용 - 石室方藥類聚 ①. 민족의학신문. 2014년 8월 16일 자. [cited July 3]; Available from:

-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77>
31. 안상우. 고의서산책 645 寶鑑法例 의거한 論病藥方 - 石室方藥類聚 ②. 민족의학신문. 2014년 8월 22일 자. [cited July 3]; Available from: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25>
 32.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from:
<https://library.yonsei.ac.kr>
 33.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cited July 1]; Available
<https://elibrary.wku.ac.kr>
 34.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July 1]; Available
from:<https://jsg.aks.ac.kr>
 35.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cited July 3]; Available from: <https://ctext.org/zh>